경기도, 대형 섬유·가구단지 조성

2013년까지 포천에 2500억원 투입 ... 경기북부 섬유산업 시너지 기대

경기도 포천에 2013년까지 132만㎡에 이르는 대규모 가구·섬유 복합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경기도 제2청은 포천시 및 사업시행자인 극동건설과 가구·섬유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5월 7일 체결했다.

포천시 군내면 일대 132만2000㎡에 2500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복합산업단지는 가구와 섬유, 기타 제조기업이 유치될 예정이다.

연구에서 개발, 생산, 판매까지 일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경기 북부지역의 가구·섬유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방침이다.

단지가 완공되면 연간 생산액 7000억원, 8000여명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앞서 조성됐거나 조성되고 있는 양주 검준산업단지, 포천 양문산업단지, 포천 신평산업단지 등과 연계하면 경기 북부지역의 섬유산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산업단지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나 실수요자가 직접 개발해 왔으나 포천 복합산업 단지는 극동건설 주도 아래 포천시와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건설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5/07>